

# 대학 무용교육과 커뮤니티 서비스학습의 결합 모형 연구

## -대학 커뮤니티댄스 교육의 학습 설계 기준-\*

한 헤 리\*\*

### 목 차

Abstract

I. 서론

II. 대학 무용교육의 임무

1. 지식의 소유와 지식의 공유
2. 시대 의식 -윤리적 분석력- 의 교육

III. 변화의 전략

-커뮤니티댄스와 협업적 네트워크

1. 커뮤니티 서비스학습과  
커뮤니티댄스 교육의 과제
2. 무용 학습 경험의 창조  
-현장 실습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A study on the combination model between university dance education and community service learning - Learning design standard of university community dance education -

Han, Hea-ree · Kyungsoong University

This study suggested community dance as a plan of participating a new consciousness education of university dance for the new ecological period. The cores of various educational innovations are environmental based education, experience focused education and local community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soong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12).

\*\*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2012. 7. 20. 심사일: 2012. 8. 10. 게재확정일: 2012. 9. 1.

oriented education. The university community dance education in this study is designed for the university dance education innovation.

The community dance aims to communicate by means of dance in the community sharing social interests that has an educational type of the consciousness of the time to complement social relationship with dance and to supply social experiences.

The field practice design of the community dance is all-in-one type education with teamwork from community selection, purpose and method of dance sharing, execution to feedback.

The community dance helps to experience common consciousness and value by cooperative activities of dispersed knowledge.

The detail of the community dance must be a dance focusing on mental activity and creative activity. It must not be restricted to one type of dance, but include wide range of dance practice (experiences).

The community dance forms a cooperative network in which various areas' participants shares their knowledge in the dispersing way.

The cooperative learning of the community dance enlarges the self-consciousness to others, and expands the scope of sympathy so that they might be involved in mutual independent community more deeply.

**key words:** university dance education, community dance, community service learning, cooperative learning

**주요어:** 대학 무용교육, 커뮤니티댄스, 커뮤니티 서비스 학습, 협력학습

## I . 서론

본 연구는 의식을 교육하는 인류 문화의 기본 구조에서 변화를 인지하고 새로운 시대 의식을 이해하여 교육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무용 연구의 관점을 무용과 대학 그리고 사회의 관계로 다원화 하였다. 이러한 연구 시각에서 대학 무용의 임무와 그 안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으로서 무용인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임무와 책임에 따른 대학 무용의 과업이 설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공 서비스와 현장실습을 결합한 '커뮤니티 서비스 학습'은 지역사회 현장실습 교육으로 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커뮤니티댄스 학습방법과 이론적 토대가 유사하다. 커뮤니티 서비스 학습이 교육의 범주를 공공의 서비스로 확장하고 방법론에서 일방적 주입 교육이 아닌 분산과 협력 형태를 지향한다면 대학 무용이 시대 의식을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책으로 제안하는 커뮤니티댄스는 무용교육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혜택으로 다가

는 교육복지를 주장하며 그러한 혜택으로서의 무용교육을 위해 수평적 관계의 참여 학습을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서비스학습의 궁극적 목표는 윤리적 분석력과 문제 해결력 그리고 리더십 개발로 이러한 교육적 기능은 대학 교육 즉, 인류의 고등교육의 목표 및 임무가 시대 의식과 부합하여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과정의 변화에 발 맞추기 어려운 것은 여러 방향으로의 탐색과 해결 방안 강구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적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학이 시대 의식을 교육하지 못한다면 대학과 사회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무용의 사회적 소외는 결국, 무용의 접근성 문제이다. 교육은 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무용 학습의 기회 확대를 제안한다. 무용 학습 기회 제공의 장애가 학습 효과에 대한 증거 부족이 아니라 제도적 부적합성 때문이라면 새로운 의식의 무용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 개선과 학습법 개발은 대학 무용의 당면 과제이다. 현재 대학 무용은 예술무용 및 무대무용 감상을 중심 축으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 무용교육 과정은 무용의 종류나 양식에 따른 테크닉 교육이 실습의 주 내용이다. 현재 대학 무용은 전승되고 고착되어진 익숙한 무용의 양식적 테크닉을 실습하는 실기교육과 예술 감상의 코드를 전수하는 무용의 역사 및 감상 수업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에 사회와 대학이 공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 무용교육과정의 대안 설계로 무용이 가진 예술적 가치인 자아인식을 통한 잠재력 개발을 교육의 목적으로 무용학습의 내용을 구성하고, 양식화된 무용의 테크닉 실기교육 대신 커뮤니티댄스 현장 실습 과정을 대체하여 커뮤니티 서비스 학습으로서의 대학 커뮤니티댄스 교육을 모델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시대 의식을 담은 대학 무용교육으로 커뮤니티댄스를 제안하고 대학 무용교육 과정으로서의 접목을 위한 본 연구는 대학 무용의 시대적 임무와 대학 무용 교육의 변화 전략으로서의 커뮤니티댄스 그리고 모두에게 무용이 교육적 혜택으로 닥아갈 수 있도록 무용학습 기회 창출로서의 현장 실습을 제시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선행 연구로는 “지역사회와 대학의 무용교육 -community dance의 한국적 수용-”(한혜리, 2005), “무용의 지역사회 교육적 접근에 관한 연구 -community dance의 개념과 방법-”(2008), “무용의 사회적 개념 연구- 공동체 무용과 교육의 관계-”(2011), “참여 무용의 제도화를 위한 교육전략 연구”, ‘커뮤니티댄스의 교육적 기대와 사회적 효과“(2012)와 황정옥(2004)의 “무용복지제도화를 위한 지역사회무용(communitiy dance) 적용방안 연구”,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Community Dance의 의미”(2011), “문화예술교육에서 Community Dance의 위치”(2012)가 있다.

## II . 대학 무용교육의 임무

학문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마음을 수양하면서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Tang, M.,2000 :114).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 대학이라면 학문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성취하여야 할 임무 또한 있는 곳이다. 대학의 사회 기여는 곧, 학문 연구의 연장으로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고 비판적 사고를 가진 또 다른 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대학이 임무를 다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식의 개념도 달리 정의하고 그 지식의 사용 방향과 방법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대학에 무용학과가 개설되어 독립적 연구와 교육의 업적을 축적한 역사는 50년을 넘기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시대의 변화는 이전의 한 세기의 변화를 동시에 겪게 되는 속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통합적 시각을 요구하는 시대에 대학 무용교육의 임무는 높게 벽이 쌓여 있는 사회와 학문의 상아탑 그리고 삶과 예술의 분리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대신, 무용이 사회와 삶과 그리고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고, 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학의 사회적 역할 중 하나로 제안되고 실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학습’은 현장실습 및 공공 서비스와 대학교육을 결합한 것으로, 대학 무용에서 ‘커뮤니티댄스’라는 명칭으로 실시되고 있다.

### 1. 지식의 소유와 지식의 공유

전통적으로 지식은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힘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런 관점 대신에 지식은 인류 전체 및 지구 전체의 집단적 안녕과 행복에 대한 공통된 책임감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관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Rifkin, J. 2012: 339).

19세기에 Humboldt가 베를린 대학을 창립하면서 주장했던 국가로부터 대학의 자율과 교수 연구의 자율, 학생의 학문 활동의 자율이 대학 교육의 배경 철학이라면 현재 대학은 상아탑에서 벗어나 모두가 그러한 자율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러한 지향점

---

1) 한국무용교육학회 제19회 학술심포지움 및 제23회 무용지도자 강습회, “생명제한환우 대상 커뮤니티댄스 사례연구 -행복한 시간, 아름다운 나의 춤-” **무용교육과 커뮤니티댄스** pp. 61-78, 2012. 6. 22. 이화여자대학교 ECC 157호.

은 합의된 것이지만 그 실천 방법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가시적인 것으로는 고등교육의 확대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와 관계된 무용 그리고 대학과 대학 밖의 삶이 소통하는 무용교육의 방법론 제안은 대학 교육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고등교육의 핵심 목적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학문과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란 지식의 한계를 인지하고,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학문 연구와 교육이 대학의 임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학문을 자신의 지식으로 소유하는 시대를 지나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공유가 학문을 하는 목적과 역할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20세기 후반부터 대학의 공적인 역할을 촉구하게 되는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진적인 고등교육의 규모 확대가 있다. 한국의 대학 무용도 60년대 초반에 대학에서의 독립학과 개설을 시작으로 전국에 50개가 넘는 대학 무용(학)과가 개설되었다. 세계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그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설되었다. 고등교육의 확대가 시대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대학의 증설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확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를 교육 과정의 개선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대학과 학과는 외면당했다. 대학의 구조 측면에서는 전공의 쏠림 현상 해결이 당면 과제였고,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은 변화한 새로운 사회와 소통하는 법을 몰라 이전의 직업군으로의 진입을 위해 고지 없는 전진을 계속하면서 사회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대학 무용은 인구 감소와 대학의 증설로 각 대학별로 정원 미달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학과 간 통·폐합의 첫 번째 대상학과가 되었다. 대학 무용이 시대 의식에 따른 교육 제도와 교육 과정의 개선을 연구하고 제시 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무용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데에는 전공자 감소로 대학 무용이 위축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대학 밖 사회 전반의 무용에 대한 관심도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 밖 사회와의 소통에 실패한 대학 무용은 결국, 예술과 학문 그리고 교육의 트라이앵글이 맑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책임을 안게 되었다.

20세기 말부터 예술도 학문도 그리고 정치와 윤리도 더 이상 전통적인 하나의 기준으로 학문적 성과를 제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의 틀 거리에 맞추어 학습되고 전수된 코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으로는 다양한 사람들과 시대적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아탑에서 나와 삶과 직접 소통하여야 하는 과업을 안게 된 모든 학문은 지식을 포함한 사회자본의 소유를 늘리려는 엘리트 의식 대신 공유와 협력을 인류 공생의 답안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세계는 영토보다 인간적인 공감대의 확장을 추구(Rifkin, J., 2004: 17)하고, 문명화의 기준도 공감 능력으로 대치하였다. 우리가 사는 시대

는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할 뿐 아니라, 역사를 꾸준한 물질적 발전으로 보는 사고방식 자체를 부정한다. 인류의 목표는 재순환을 통해 자원을 채울 수 있는 자연의 능력과 인간의 생산 및 소비 사이 균형을 맞추므로서 높은 삶의 질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19세기 이후 각 개인에게 주어진 힘과 소질을 완전히 발현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권리이자 사명이라는 Humbolt의 근본 사상(Herder, W., 1774:209)에서 대학은 자기 결정의 능력을 갖춘 인간들이 완전한 자유와 책임의 원칙 아래 자율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었다. 각자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인간의 권리와 사명을 대학 밖의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한 고등 교육의 확대 전략에 따라 대학은 협력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의 방법을 제시하는 임무를 추가하게 되었다.

학문이란 자기 결정에 의거한 사유체계이므로 그 안에서는 개인의 고유한 사유 외에는 그 어떤 권위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19세기 이후 학문에 대한 근본 사상이다. 그러나 모더니즘 이후 세대인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모든 인간의 생명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자연도 존중 받을 가치가 있다는 보편적 사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즉, 협력을 통해 제시된 보편적 의식을 교육하려는 사회 의식을 대학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반면에 존재하는 극단성에 대한 염려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엘리트 의식의 전달이나 확산 대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사상을 제시하기 위해 공유와 협력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즉,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완전성 추구는 그 무엇에도 우선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대상이 자연과 환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 정보화 사회라는 말이 통용되는 현 시대는 지식의 소유에서 지식의 공유로 우리의 지식 개념이 전환되었고 그 배경에는 양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수평적 사회 구조와 협업 지향의 분산적 경제 구도가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유능한 인재란 전 시대의 지식을 계승하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 물리적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체험하고 그 체험적 지식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사람이다.

## 2. 시대 의식 -윤리적 분석력- 의 교육

인류는 시대를 막론하고 당시의 의식을 교육하였다. 그리고 인류가 교육하는 의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므로 교육의 임무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시대는 사회와 의식의 변화를 동반하고 학문

은 그 시대에 따라 발생한 의식을 교육하기 위하여 동 시대 의식을 조합하여 정의하는 것이었으므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에 일어난 현상의 단편적인 지식교육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진 일과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의식 변화의 주 요인이 되는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학문의 영역마다 다른 것을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Rifkin, J.(2012: 337)은 에너지 체계와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제시했다.

수렵채취 사회는 구전문화를 토대로 했으며 ‘신화적 의식’에 젖어 있었다. 관개 문명은 문자를 중심으로 조직화 되었고 세계의 종교와 ‘신학적 의식’을 낳았다. 200년 전에는 인쇄 기술이 석탄과 증기기관 기반 1차 산업혁명의 수 많은 활동을 조직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활약하며 계몽주의 시대와 더불어 신학적 의미에서 ‘사상적 의식’으로 변혁을 이끌었다. 20세기에는 전기 전자 통신이 석유 경제 및 자동차에 기반을 둔 2차 산업혁명을 관리하는 지휘 통제 메커니즘이 되었다. 전기전자 통신은 새로운 ‘심리학적 의식’을 낳았다(Rifkin, J., 2012: 337).

대학과 사회와의 관계 측면에서 대학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수평적 사회는 역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인류의 과제이자 아직 해결 중인 과업 중 하나이다. 사회는 언제나 불평등했고 제도도 언제나 불합리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제안한 것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을 단지, 실천 방법의 문제로 판단하고 해결하려는 긴 역사의 끝에서 인류가 제시한 해결책이 다원적 사고이다. 다원적 사고는 단 하나의 기준이나 영원불변설을 부정한다. 수평적 사회의 새로운 세계관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효용 가치 보다는 고유한 본질적 가치에 주목하며 인류의 생물권은 우리가 함께 돌보고 가꾸어야 할 공동체로 인식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세대들은 “분산적이고 협업적인 경제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Rifkin, J. 2012: 327)에 교육의 변화가 촉구되는 것이다. 즉, 소유와 효용이 삶의 지표이던 시대를 지나 공유와 존재에 가치를 두는 전환의 시대에 당면했기 때문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동체는 뒤쳐진 자, 억눌린 자, 여성, 다른 종교의 교도, 하층민, 타자로 낙인찍힌 자, 권리와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매우 잔혹하다. 문제는 사람들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 공포, 질시, 편견, 역사적 적의에 있다 (Blackburn, S. 2009: 308).

대학 교육이 비대칭적 관계의 수직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윤리이다. 대학은 이제

더 이상 이성을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들만이 권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이성적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하는 세계관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탐색 중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시대의 건조한 학문적 포장을 앞세운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과 정책의 지혜를 인간적이고 다원적인 차원으로 모색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문가 엘리트의 독선에 빠지기 쉬운 이성적 제안 대신 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를 공유하고 협력으로 제시되는 실천 지성에 더 의미와 가치를 두는 시대를 맞아, 대학 무용은 사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문제에 관여하는 무용을 제시해야 할 임무가 생겼다. 사회에서 대학 무용의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분야는 새로운 세계관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범 세계적 사회문제 해결 사례들이다. 정책화된 문화예술교육에서 검증된 무용의 효능<sup>2)</sup>은 유의미한 수치로 제시되고 있지만 정책을 통한 제도적 배려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직접 연계하는 참여 무용이 윤리(인문, 도덕) 교육의 결과를 가져다 준 지구 곳곳의 사례<sup>3)</sup>들은 무용이 모두의 삶에 관여하여 교육적 기능을 증명한 것이다. 대학 밖 무용은 지난 시대까지 학문이 축적한 독단적 무용 지식과 무용학습 방법의 주입식 교육이어서는 안된다.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 양식을 가진 타인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교육 환경에서는 대학 무용이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에 의해 창출할 보편적 의식이나 가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은 학문 연구 과정에서 수평적 관계와 존재적인 본질의 가치를 인정해야하는 시대 의식 앞에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예측하고 염려하였다.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는 어느 문화나 가치 있고 정당하기 때문에 모든 문화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문화적 관행으로 인정하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고,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 역시 열려진 공동체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협력적 대안을 내놓기에는 축적된 지식 수준이 다양한 것에서 예견되는 견해의 간극을 염려하였다. 물론,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다양성 인정은 민주주의의 강화와 사회정의의 강화에 대한 광대한 논의 속에 통합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논의의 통합은 다른 생각들이 모인 다원적 시각에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 2) “커뮤니티댄스의 정책 사례는 영국에서 커뮤니티댄스가 소외된 그룹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차별 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성공을 거둔 것 그리고 미국 뉴욕시의 문제 청소년을 위한 무용교육 Dance Education for At-Risk youth - Ailey Camp, National Dance Institute(NDI), 예술연합 유망주 무용 프로그램 YT(Arts Connection Young Talented Dance Program-이 행정 관료들의 무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그 효과가 검증된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한혜리, 2012:22 재인용).
- 3) 콜롬비아 <몸의 학교>,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 maipu의 <빈민촌 힙합프로젝트> 등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이 증가 할수록 배타적이긴 하지만 그 성원을 보호해주는 문화적, 민족적 소속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럴수록 자기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곳에서 체험한 좌절을 보상 받는 수단이 되거나 지배도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Martinello, M., 1997 :129).

공유와 협력을 지향하게 된 배경에도 그리고 그 지향점을 향한 부단한 노력과 실천의 과정에서도 늘 전제되어 있는 것은 사회 계층이다. 계층이라고 부르던 사회안의 또 다른 공동체라고 분류하던 명칭과 상관없이 그리고 시대 의식과도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은 그것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과는 별개로 고유의 존재적 가치가 있다. 인간에서 자연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존재의 본질적 가치 인식들이 수직성에서 수평성으로 옮겨 간 시대 의식이 낳은 것이 공유와 협력이라는 답안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대학 무용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무용으로 대학 밖의 사회와 관계 맺기는 학문적 지식을 독선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네트워크 형성 대신 수평적 관계에서 무용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상호 협력적 소통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학 무용은 지식의 공유와 생각의 협력결과로서 보편적 인식과 보편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무용을 통해 모든 인간의 생명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자연도 존중 받을 가치가 있다는 보편적 의식과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완전성은 인간이 수호해야만 하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시대 의식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 의식과 가치를 무용으로 교육하는 것 그것이 대학무용의 임무이며 그 교육의 방법 또한 대학무용이 연구하여야 할 과업일 것이다. 대학 무용은 다양한 학문과 사회 공동체들과 수평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제적으로 무용을 공유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윤리<sup>4)</sup>적 분석력과 동 시대를 살면서 그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력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않고 공동체안에서 협력하여 살아가는 리더쉽을 교육하여야하기 때문이다.

---

4) 윤리는 상대방을 공정하게 대하기 위한 행동체계(Diamond, S., 2010:148)라 할 수 있다.

### III. 변화를 위한 전략 -커뮤니티댄스와 협력적 네트워크

20세기 공연형식의 예술무용이 사회와의 접근방법에서 일방적인 태도<sup>5)</sup>로 고도의 기술과 숙련도, 규범적인 동작과 형식화된(법정)교과과정의 교육을 고집하였다면 오늘의 커뮤니티댄스는 사회적 관심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무용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로, 무용이 사회적 교제를 보완하고 사회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식의 실천 형식이다(한혜리, 2012b :19).

#### 1. 커뮤니티 서비스 학습과 커뮤니티댄스 교육의 과제

지역과 국가를 막론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육 시스템은 지난 시대의 의식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전승되어 오는 문화이다. 따라서 현재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구식이 되어버리는 커리큘럼이 경제적, 환경적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의 사회에 적합한 제도일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교육 개혁 운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환경에 기반을 둔 교육, 경험 중심의 교육, 지역사회 지향의 교육이다 점차 부각하는 이러한 우리의 생물권 의식은 진화 생물학, 신경인지과학, 아동발달 서비스 분야에서 나온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많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믿었던 바와 달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성적이고 무심하고, 욕심 많고, 공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며 자애롭고, 사교적이고, 협동과 상호의존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Homo Sapiens는 물러가고 Homo Empathicus가 떠오르고 있다. 공감수준이 곧 문명화 수준이라는 것이다(Rifkin, J. 2012: 338).

환경에 기반을 둔 교육이란 전 세계를 연결한 시대 의식을 교육하려는 교육의 중심 사명 중 하나로 각 개인들이 공유 생물권 내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을 말한다. 무용에서도 ecodance라는 연구 분야가 결과물<sup>6)</sup>을 내 놓고 있다. 무용은 결국, 생명의 원리를 모방하는 것이라는 견해에서 시작된 에코댄스는 인류를 우리가 살아가는 더 큰 생명 공동체의 구조 안에 다시 자리 잡도록 만들기 위한 첫 단계에 동참한 것이다. 예술이 생태계의 생물학적 관계를 보여 주듯이 현재 사회가 시도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지구 생태계의 생물학적 관계와 유사하게 만드는 일이다

5) 예술작품은 오직 문화적 능력 즉, 해독의 기준이 되는 약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나 의미가 있고 오직 그런 사람의 관심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P. Bourdieu, 1979:23).

6) 오레지나(2010, 2011)

라고 말하는 학자(Rifkin, J. 2011: 321)도 있다.

고등 교육에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것은 독립적인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생물관(생태론)의 명백한 목표라면 이는 이전의 고등 교육이 지향했던 비판적 사고 능력과 다르지 않다. 단지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관계를 수직 구조가 아닌 수평적으로 인식한다는 것 그래서 합의되거나 정해진 진리는 일방적 전달이 아닌 공유와 협력에 의한 윤리 교육, 체험적 지식으로 공유하려는 것이 다른 점이다.

Rhode, D.L.(2006:137)는 커뮤니티 서비스 학습이 목적으로 하는 핵심 역량을 윤리적 분석과 문제 해결, 리더십에 덧붙여 사회적 필요에 대한 관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습은 학생들이 상충되는 여러 가치가 이해 관계를 형성하는 복잡한 사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종과 민족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타인과 상호존중적인 대화를 나누며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부당한 사회문제가 어떻게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교과 과정은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정책 선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뜻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댄스는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그들의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의 문제’로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의식이 지역사회나 시민 참여의 기반을 보다 강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와 관계된 적극적인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교수의 지도에 따라 스스로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성공적인 수업전략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로서의 공연 무용을 지향하던 과거의 대학 무용은 역사로 축적된 양식만큼 다양해진 예술 무용의 종류를 실기로 학습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다른 학문과 같이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고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려는 경쟁적 학습 환경을 조장하게 된 원인이며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제 학문과 교육이 경쟁적 경기장을 조성하는 시대는 지났다. 협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학습 경험을 창조하는 새로운 무용교육 모델이 출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무용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를 혼자 비축해 두지 않고 서로 공유하는 인터넷과 함께 자라난 세대는, 지식도 개인의 소유로 만들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려 하고 그 공유의 범위가 지식의 가치라고 믿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 세대에 독창적이고 소유적인 지식은 없다. 자기 지식화를 위한 지식 적용의 창의성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존감 향상<sup>7)</sup>이 곧 문제 해결력이고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창의성과 자존감 즉, 자아 의식은 무용의 예술적 가

치이자 무용학습의 목표이다. 무용을 하면 자동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인간의 잠재된 고유 능력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용교육에 남겨진 과제는 어떻게 무용을 하게 할 것인가 하는 학습경험의 창조와 무엇을 위한 무용학습인가 하는 시대 의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열린 소셜 네트워크에서 교류하는 것에 익숙한 세대와 호흡하는 대학 교육은 협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제안 그리고 무용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의식은 인류를 생태라는 보다 큰 공동체의 하나로 보는 윤리관을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 학습으로서의 대학 커뮤니티댄스 교육을 위한 현장 실습의 내용 설계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무용 공유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실행과 피드백까지를 팀워크로 진행하는 개별 커뮤니티 별 일체형 학습 구조를 지닌다.

## 2. 무용학습 경험의 창조 -현장 실습

대학 무용 프로그램의 위치 정립은 1950년대 초에서 6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고 대학 교육과정에서 무용의 초점은 무용가가 아닌 교사 육성이었다. Brinson, P.(1991)을 비롯한 무용교육자들이 예술형태의 무용을 대학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는 것에는 신체 교육과 상상력 교육이라는 두가지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무용의 형태로 예술무용이 제시되었다. 교육자들이 제시한 예술 형태의 무용이란 양식화된 역사적 무용<sup>8)</sup>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함유한 무용을 지칭하는 것이다. 즉, 지적 정신 활동을 동반한 신체적인 창조활동이 무용교육임으로 정신 활동과 창조활동은 예술의 가치이자 동시에 무용교육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용교육은 한 가지의 무용 형태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창작무용creative dance, 민속무용 folk dance, 놀이무용 play dance등 포함할 수 있으며 정신활동과 창조적 표현활동의 핵심인 행동하기doing, 감각하기perceiving, 알기knowing, 이해하기understanding, 창조하기creating, 평가하기evaluating의 과정들을 활용한 광범위한 무용 실습(경험 혹은 체험)들을 포함하여야한다.

말하고 칠판에 적는 전통적인 강의법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모범 사례로는 앞서 이야기 한 현장실습 및 커뮤니티 서비스 학습이 있다. 더불어 역할 체험과 협력적 팀 프로젝트, 사례 연구를 통한 문제해결과 체계적인 과제 수행 등이 포함된다(Rhode, D.L., 2006:139).

7) 자존감 향상이란 자아의식을 다양한 타인에 까지 확장하고 보다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에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공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8) Classic Ballet, Modern Dance, Jazz 등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학 커뮤니티댄스 학습은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른 형태와 단계로 즐길 수 있는 예술 형태의 무용을 무엇과 왜 관계지으려 하는지를 성찰하고 그 과정을 통해 무용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반영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기획의 현장실습이다. 그리고 그 경험안에서 무용이 사회 변화의 촉매 기능을 하게 되는 교육 방법을 탐색하고 그 실천을 주도하면서 주변의 여러 커뮤니티들과 무용을 공유하는 팀 프로젝트로서의 현장 실습을 기획하는 것이 커뮤니티댄스 현장실습이다.

학교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하기 위해 지역 수목원, 동물원, 공원, 야생동물 치료센터, 동물보호 구역, 동물보호 단체, 환경단체, 대학 연구소 등과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직접 참여와 여타 생명체에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 특정한 주제를 학습할 수 있다.

교육계의 노력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학습에 수평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학생들이 스스로 소속되고 생물권을 구성하는 많은 생태적 공동체에 직접 참여하여 자아를 확장하는데 초점을 둔다(Rifkin, J. 2012: 365).

대학교육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생태적 공동체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 실습에 모델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인류를 보다 거대한 생물권의 한 요소로 볼 줄 아는 시대의식을 교육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은 가치나 효용성에 우선하는 존재에 의미를 두는 사상이다. 그리고 생물권 안의 모든 것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사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식에서 사회문제에 관여하는 대학 커뮤니티댄스는 사회문제 해결과 선도 및 상담의 기능을 가진다. 에코댄스와 같이 환경의 범위를 생물권으로 넓혀 사회 문제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인 곳에서 탐색하고 공동체의 실천적 생활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도 커뮤니티댄스 연구 분야중 하나이다. 문제와 갈등의 원인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느냐의 방식은 문화와 정체성 만큼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문제와 갈등의 근본 원인은 공동체 간의 비 대칭적인 관계 때문이고 그러한 비 대칭적 관계 형성의 근본 의식에는 인간 중심 그리고 이성중심 사상이 있다는 것은 인류 공통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생각의 형태이다. 따라서 새로운 생물관은 더 이상 예전의 상의하달식 교육방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기존의 하향식 접근법에는 경쟁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였다. 지식은 전 세대로부터 물려 받은 유산이나 축적 가능한 자원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분산 및 공유되는 경험이다.

분산적이고 협업적인 관점은 학습이 언제나 본질적으로 사회적 경험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Rifkin, J. 2012: 348).

Bruffee, K.A.(1999:66)를 비롯한 교육 개혁가들의 관점에 따르면 지식은 사회적 구조물 즉, 학습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합치된 의견이다. peer to peer 학습은 단독 자아에서 상호의존적인 그룹으로 초점을 바꾸어가고 있으며 학습은 이제 더 이상 교수(사)라는 권위적 인물과 학생사이의 고립된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 경험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커뮤니티댄스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소규모 활동 그룹으로 나뉘어 특정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교수는 과제를 부여한 후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 공동체를 조직하도록 물러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분석을 비판하고 서로의 의견을 기반으로 사고하여 이견을 종합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평적 학습의 목표는 학생이 성과를 내기 보다는 진정으로 생각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므로 커뮤니티댄스 학습 프로세스가 지닌 협력적 특성은 지식 습득이 결코 혼자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룹을 통한 활동이라는 생각을 학생들의 마음 속에 심어주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수평적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댄스 교육은 학문과 지식의 힘과 권위의 중심점이 위계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며 하향적이지 않고 상호적이고, 민주적이며 네트워크적인 특성을 갖는다. 분산적 지식의 협력학습에서 학생들 개개인은 다른 학생의 교육에 대해 서로 책임감을 느낀다. 팀 워크로 진행되는 학습은 결국, 타인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조율하고, 자신과 다른 관점이나 견해에 열린 태도를 갖고, 비판을 귀담아듣고, 서로 도와 주려고 애쓰고, 전체 학습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Rifkin, J.(2012: 354)은 학생들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인 듯 경험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댄스의 수평적 학습은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윤리관 즉, 생태론적 관점으로 환경과 사회와의 관계 짓기를 하고 그 관계 가운데서 문제와 갈등(비 대칭적 관계)을 탐색하는 커뮤니티댄스 학습은 결국 학제간 교육과 다문화 연구를 전제로 한다.

현재 대학은 명확하게 경계를 그은 독립적 학문 분야들이 존재하는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이 분산 방식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협업적 네트워크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 중이다. 이러한 대학의 변화 중앙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관점과 문화적 관점을 갖고 특정한 연구 분야에 접근하는 커뮤니티댄스 학습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용과

사회 그리고 무용과 환경을 연결하여 생각하는 대학 무용의 커뮤니티댄스 팀 프로젝트는 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중심 시각에서 바라보아서는 안되며 보다 다각적인 열린 태도로 각 개인의 정체성을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댄스는 지식의 분산과 협업을 토대로 하는 대학 무용 교육 개혁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성과가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댄스와 같은 협업적 학습은 학생들이 자아 의식을 다양한 타인에 까지 확장하고 보다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에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즉, 공감의 범위를 넓히는 교육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학 무용교육이 실행해야 할 커뮤니티댄스는 사회적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를 떠나 삶의 일부로 즉, 생태계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하나의 환경이 되기 위해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하기 위해서,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과 관계맺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보다 아름다운 자신이기 위해서 무용교육의 목적은 시대마다 다르게 설정되기도 하였고 또, 그 목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무용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칭적 관계의 생태계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제안된 커뮤니티댄스는 수평적이고 협업적인 방식의 학습으로의 무용 교육을 삶의 일부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무용의 접근성 향상의 방안을 현장실습으로 제안하고 있다.

## IV. 결론

춤이라는 것은 더 이상 공연이나 전시와 같은 방식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마치 새의 울음 소리처럼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오로지 신체가 그런 범위 까지만 춤을 추는 것이 좋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무용수들이 말년에 들어서 이루어야만 하는 커다란 전환). 그런 변화로부터 삶이 도출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때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필요로하고 기뻐하는 행동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며 나아가 그런 변화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다른 일들 속으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전체가 그 중에 합류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춤추는 것이다(Osbon, D. K. 1991: 378).

19세기와 20세기에는 근면함이 사람의 표시였고 생산적인 노동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 그 때, 인류는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면서 수세대 사람들이 기계적인 삶을 살았다. 이제 분산과 협업의 시대를 맞이한 인류는 실용적 세계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끼는 기회를 제공받고 싶어 한다. 인간은 체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느낌을 소통할 때 자유에 대한 인식이 더욱 명확해진다. 각자의 자유를 보장 받는 환경 조성 만큼 중요한 것이 자유를 느끼는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 능력이 고등교육의 특권이었던 시대를 지나 이제 대학은 그 능력을 모두와 공유하려한다.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잠재능력이자 본능이다. 그래서 대학 무용은 각 개인의 잠재력 개발의 기회를 커뮤니티댄스 학습으로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윤리관이 제시된 시대에 대학 무용이 새 시대 의식교육에 동참하는 방안으로 커뮤니티댄스를 제안하였다. 대학 커뮤니티댄스 교육의 배경에는 대학이 추구하는 학문과 교육이 그 지향점을 변경하게 된 의식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의 중앙에 커뮤니티댄스 교육이 자리 하기 위해 대학 커뮤니티 서비스 학습과 커뮤니티댄스의 결합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교육 개혁의 핵심은 환경에 기반을 둔 교육, 경험 중심의 교육, 지역사회 지향의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 개혁에서 대학 무용교육을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대학 커뮤니티댄스 교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설계되어지는 학습이다.

- 커뮤니티댄스는 사회적 관심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무용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로, 무용이 사회적 교제를 보완하고 사회 경험을 제공해야한다는 시대의식의 교육 형식이다.
- 커뮤니티댄스에서 현장실습이란 사회 내의 커뮤니티의 선정과 무용 공유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실행과 피드백까지가 팀워크로 진행되는 커뮤니티 별 일체형 교육구조를 지닌다.
- 커뮤니티댄스는 분산적 지식이 협력 활동을 통해 보편적 의식과 보편적인 가치로 제시되는 체험형 학습이다.
- 커뮤니티댄스의 내용은 정신 활동과 창조활동이 핵심 요소로 한 가지 양식이나 종류의 무용에 국한되어서는 않되며 예술활동의 핵심 과정(행동하기, 감각하기, 알기, 이해하기, 창조하기, 평가하기)들을 활용한 광범위한 무용 실습(경험 혹은 체험)을 포함한다.
- 커뮤니티댄스는 각 학문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분산적 지식을 공유하는 협업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커뮤니티댄스의 협업적 학습은 학생들이 자아 의식을 다양한 타인에 까지 확장하고 보다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에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공감의 범위를 넓히게 되는 효능을 기대하여야 한다.



---

## 참고문헌

- 오레지나(2010), “에코댄스의 개념”, **모드니 예술 제 3권**,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51-60.
- \_\_\_\_\_ (2011), “에코댄스의 구조와 교육적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2집 2호**, 39-52.
- 한혜리(2005), “지역사회와 대학의 무용교육 -community dance의 한국적 수용-”, **지역사회·대학·무용**, 부산대학무용진흥회, 부산대학무용진흥회 학술심포지움, 경성대학교 대형세미나실 27호관 702호, 20-27.
- \_\_\_\_\_ (2008), “무용의 지역사회교육적 접근에 관한 연구 -community dance의 개념과 방법-”,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9집 1호**, 1-22.
- \_\_\_\_\_ (2011), “무용의 사회적 개념 연구- 공동체 무용과 교육의 관계-”,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2집 1호**, 17-31.
- \_\_\_\_\_ (2012a), “참여 무용의 제도화를 위한 교육전략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집 1호**, 41-57.
- \_\_\_\_\_ (2012b), “커뮤니티댄스의 교육적 기대와 사회적 효과”. **커뮤니티댄스와 무용교육**, 한국무용교육학회, 제19회 학술심포지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19-30.
- 황정옥(2004), “무용복지제도화를 위한 지역사회무용(communitiy dance) 적용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_\_\_\_\_ (2011),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Community Dance의 의미”,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 예술 제4권**, 33-57.
- \_\_\_\_\_ (2012), “문화예술교육에서 Community Dance의 위치”, **커뮤니티댄스와 무용교육**, 한국무용교육학회, 제19회 학술심포지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45-54.
- Blackburn, S.(2009), *Big Question : Philosophy*, 남경태(역, 2012), **철학을 낳은 위대한 질문들**, 휴먼사이언스.
- Bourdieu, P. (1979), *La distinction- critique du Jugement*, 최중철(역, 2006), **구별짓기**, 새물결.
- Brinson, P.(1991), *Dance as education Towards a National Dance Culture*, London: The Falmer Press.
- Bruffee, K.A.(1999), *Collaborative Learning: Interdependence and the Authority of Knowledge*, 2<sup>nd</sup> Edition, Baltimore, MD:Jhon Hopkins University Press.
- Diamond, S.(2010), *Getting More*, 김태훈(역, 2011),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0.
- Herder, W.(1774), 안성찬(역, 2011), **인류의 교육을 위한 역사철학**, 한길사.
- Martinello, M.,(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윤진(역,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 Osbon, D. K.(1991), *Joseph Campbell companion Reflection on the art of living*, 박종서(역, 2009) **신화와 인생**, 갈라파고스.
- Pastreich, M.(2011),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마다북스.
- Strosberg, E.(1999), *Art and Science*, 김승윤(역, 2001), **예술과 과학**, 을유문화사.
- Rhode, Deborah.L.(2006), *In Pursuit of Knowledge*, 윤재원(역, 2011), **대학이 말해주지 않는 그들만의 진실**, 알마.
- Rifkin, J.(2004), *The europian Dream*, 이원기(역, 2005), **유러피안 드림**, 민음사.
- \_\_\_\_\_ (2011),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안진환 (역, 2012), **제3차 산업혁명**, 민음사.

Rosenfield, S.(2011), *Common Sence*, 정명진(역, 2011), **상식의 역사**, 부클.

Russell, B.(1930), *The Conquest of Happiness*, 이순희(역,2004), **행복의 정복**, 사회평론.

Tang, M.(2000), *A Victor's Reflecting*, 안찬수(역, 2001), **하바드생이 본 중국고전의 지혜**, 굿모닝 미디어.